

고3 첫 등교...생활방역 성패 분기점

27일 고2·중3, 6월 3일 고1·중2
6월 8일 중1·초 5~6 순차 개학
야자·보충수업은 학교 자율에
컨테이너 교실·2부제 부활
광주·전남교육청 방역 총력전

코로나19 사태로 5차례나 미뤄졌던 등교 수업이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긴장감 속에 안전한 학사운영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번은 거쳐야 할 일"이라며 등교수업을 시작하지만, 이번 시도가 생활방역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이자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지역 학교들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학교별 감염병 관리조직 구축과 방역장비 확보, 학년별 수업 방식을 점검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보건교육 등을 담은 '등교수업 대비 학교 운영매뉴얼'을 제작,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학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컨테이너 교실과 오전·오후반 2부제 등 고 수 십 년 전 사라졌던 학교 모습도 되살아났다. 고3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일명 야자)과 보충수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에는 이동식 컨테이너가 설치되거나 이격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밀학급에 대한 관리가 안전한 학사운영의 최선이라는 판단에서다.

밀집도가 높은 도서관과 과학수업 등은 학급 내 활동으로 대체하고, 휴게실과 매

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분산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등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방역대응반 산하에 현장지원팀을 별도 구성해 학교에 감염(예상)자 발생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했다.

등교 시간은 학년(급)별로 오전 9시 기준 ±30분 내에서 학교 자율로 조정하고, 수업 시간은 급식 시간 조정을 위해 5분 내에서 학교별로 증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급식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학급별 시차 배식을 하고 급식실 좌석 배치를 한 방향 앉기, 한 칸씩 띄어 앉기, 지그재그식 앉기 등을 하도록 했다.

전남교육청 역시 학생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밀집도를 최소화해 등교수업을 운영한다. 또 교육청은 교실 내 사

물함 등 비차물건을 이동하고 1인 1석, 지그재그 좌석 배치로 학생간 이격거리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실 테이블에도 칸막이를 설치해 식사 시간 접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각 학교 수업일수의 20%까지 교외 체험학습(가정학습)을 인정하고, 수업시간도 5분씩 단축(초 35분, 중 40분, 고 45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등교시간, 쉬는 시간, 급식 시간도 단위학교별 자율적으로 시차 운영해 학생 간 접촉 최소화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고 1~3학년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상인 과밀학급과 대규모 학교의 경우 2부제 수업, 등교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각 학교에서는 매일 두 차례씩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일과중에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공기청정기는 사용을 금지하고 냉방장치 가동 시에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을 열도록 했다.

한편 광주·전남 각급학교의 등교수업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일에는 고3과 전교생 60명 이하 초·중학교·특수학교(전남 지역)가 우선 등교한다. 이어 27일에는 고2와 중3, 초 1~2, 유치원, 특수학교(유,고)가 등교수업을 시작한다. 6월 3일엔 고1과 중2, 초 3~4, 특수학교(초,중)가 등교하고, 6월 8일 중1과 초 5~6을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하게 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0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등교가 시작됐다.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살레시오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복구청 보건소 방역반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소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리산 케이블카 가능할까...김영록 지사 "구례군과 함께 사업 신청" 전기열차는 부정적 견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구례군에서 실시 중인 공원계획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구례군과 함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구례군의 관련 용역이 올 6월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임

시회 도정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현창(구례) 의원이 "지리산 케이블카 및 친환경 전기 열차 도입에 대한 전남도의 입장이 무엇이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나 전기 열차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구례군은 사업비 452억원을 들여 지리산 온천지구-종석대 하단부를 잇는 길

이 3.1km짜리 단선 자동순환식 케이블카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관광산업 육성에 의욕을 보인 전남도도 구례군과 함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다만 환경부가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전남도와 구례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2년 6월 구례군·남원군·산청군·함양군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으나 환경부는 공익성·환경성·기술성 부족함을 이유로 조건부 부결한 바 있다. 지리산권(전남·전북·경남) 갈등 유발, 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4개 시·군 가운데 1개 노선으로 조정을 요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예술제 7월로 연기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생활방역 지침 따라

광주일보사는 제65회 호남예술제를 6월에서 오는 7월로 변경해 개최합니다.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광주일보사는 최대한 당초 일정 대로 경연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판단하에 부득이하게 경연 일자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너그러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변경으로 인해 경연 참가자 어

려우신 분들에게는 참가비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취소 및 환불을 원하는 참가자는 대회 홈페이지 환불신청 게시판에 필수 인적사항(참가자명, 연락처, 계좌번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신청 기간은 오는 6월 3일(수)까지입니다.

광주일보사는 변경일정에 맞춰 경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행사 당일 건강할 모습으로 경연장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 호남예술제 변경 일정
 - 음악·국악·무용 등=7월5일(일)~18일(토)
 - 미술·작문=10월 7일(수)~8일(목)
- 문의 전화 062-220-0541

光州日報社

"문 대통령 5·18 기념사 '고백과 용서' 남아공 진실화해위 모델 고려한 것"

靑 "당시 기구 공소시효 배제"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언급한 '진실 고백과 용서'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1960년대부터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 및 인권 침해를 조사한 기구로, 고백과 용서의 프로세스를 갖췄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7512명에 대해 조사했고 이 가운데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전날 5·18 기념사와 관련, 남아공 모델을 언급하며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5·18 진상 조사가 이뤄질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이제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5·18 진상조사 입법 드라이브를 내면서 공소시효가 배제된 특별법이 만들어 질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는 '고백과 용서'를 강조하면서도 진실 고백을 꺼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과 아직도 5·18를 폄하하는 일부

세력에 대한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될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지만원씨는 여전히 5·18이 폭도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면서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 음해가 일부에서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가 역사왜곡죄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갔고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날 5·18 기념식에 KBS와 MBC 사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18 당시 불탄 광주 MBC, KBS 등을 언급하며 "KBS는 어제 뉴스 시간에 당시 상황을 방송하면서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를 했다"며 "이게 진실고백과 화해의 수순 아니겠냐"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츰츰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스토퍼 및 전라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스토퍼: 02-541-9270 • 고객상담실: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